

공동체 소식



연중 제21주일

하느님, 신자들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갈망하며,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도, 참기쁨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 오늘은 ‘연중 제21주일’입니다.

※ 매일미사 책 125쪽 참조.

■ 이번 주간의 성인축일

8/28(월):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 학자 기념일,
8/29(화): 성 요한 세례자의 수난 기념일.

■ 2017년 본당 야외미사

- 일시 : 9/3(주일) 오전 11:00.
- 장소 : Shawnee Mission Park (Shelter 10),
Lenexa, KS 66219
- 일정 : 별도 공지

■ 본당 평일미사 및 신심미사 안내

- 평일 미사 : 화요일 - 저녁 7:30(성당),
수요일 - 저녁 7:30(성당),
목요일 - 오전 10:00(교육관).
- 첫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 :
토요일 - 오전 10:00(성당).

■ 애찬조 편성

- 내용 : 성당지하 주방 게시판 참조.

■ 구역장 반장 모임

- 일시 : 8/27(주일) 주일교중미사 후,
- 장소 : 본당 나자렛 교육관

■ 각 구역 반장님들은 반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전입 오신 분들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울	성 체	파 견
49	221	178	68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 주	정예진 한나	이원준 요한
차 주	김정원 안젤라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최은미 아네스	강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차 주	김주연 세실리아	홍순익 마르티노 최은미 아네스

■ 애찬 봉사자

금 주	김명은, 한춘희, 장보혜
차 주	야외 행사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병철 베네딕도, 김대연 요셉
차 주	김병철 베네딕도, 전용진 라우렌시오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8/15		149달러	
8/20	62명	304달러	1,075달러
김태중, 홍순익, 현교정 (총3세대)			

연중 제21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7년 8월 27일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전용진 로렌스 703.785.0545 lawyjun@gmail.com

주임신부: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1주일입니다.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혜의 샘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베드로 사도의 겸손한 증언으로 우리 믿음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모든 이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시어, 나자렛 예수님을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알아 뵙고 살아 있는 돌이 되어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그림 묵상

교회의 반석 베드로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마태 16,18)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에서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십니다. 죄많은 인간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부활 생명을 통해 교회를 구원의 공동체로 이끄십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22,19-23
<나는 다윗 집안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메어 주리라.>



- ◎ 주님, 당신 자애 영원하시니,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앞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1,33-36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13-20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활동과 가르침을 보여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물으십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관해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지금까지 바로 곁에서 직접 보고 들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을 대표하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고백은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것임을 밝히십니다. 곧,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은 베드로가 직접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느님께서 선사해 주신 선물이 라는 말입니다. 실제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도 이야기하듯이 하느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너무나도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하느님과 더불어 있지 않으면,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로마 11,33-36) 곧, 성령께서 알려주지 않으신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 곧 하느님의 아들이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1코린 12,3)

예수님께서서는 이처럼 하느님께서 계시해 주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배신하던 베드로의 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 있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하늘 나라의 열쇠를 지

니고 있는 베드로가 마치 교회의 주인, 하늘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주인이자 하늘 나라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며, 베드로는 교회와 하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하느님의 시종에 불과합니다. 이 점은 제1독서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궁궐의 시종장 세브나를 쫓아내고, 엘야קים을 유다 집안의 시종장으로 앉힐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다윗 집안의 열쇠를 메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이사 22,19-23) 그가 열면 달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힐키야의 아들 엘야קים은 히즈키야 임금의 궁내 대신이었지, 임금이 아니었습니다.(2열왕 18,37) 여기서 우리는 성경 시대에 한 나라의 열쇠는 임금이 아니라, 임금이 신뢰하던 종이 맡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왕국의 열쇠를 가진 이는 왕국의 주인이 아니라, 임금이 명령하는 대로 공간을 열어 곡식을 내어주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시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니 하느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맡기시며,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로 하여금 마음대로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느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당신께서 항상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 하느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잘 다스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황님이 베드로의 후계자로 하늘 나라의 열쇠를 간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늘 나라의 열쇠를 맡고 있는 하느님의 시종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청합시다. 그리고 모두 합심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교황님의 가르침에 따라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길을 더욱 충실히 따르도록 합시다.



교회와 성당

오늘 복음 속 예수님께서서는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마태 16,18)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교회(敎會)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계약을 맺은 하느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지요. 교회는 “세상이 생길 때부터 이미 상징으로 암시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구약을 통하여 놀랍게 준비되었고, 마지막 시대에 창립되어,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드러났으며, 세말에 영광스러이 완성될” 존재입니다.(「교회 현장」 2항)

교회를 희랍어로는 ecclesia(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불러모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세례를 받고 하느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불러모으신 사람들이니 우리 모두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하느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한편,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해 지정된 거룩한 건물을 성당(聖堂)이라고 부릅니다. 성당은 신자들이 미사나 전례에 참여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이자,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께서 거처하시는 장소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성당은 하느님 경배를 위해 지정된 모든 건물을 말합니다. 미사경본 총지침 288항에 따르면 성당은 ‘거룩한 행위를 거행하고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

는 데에 알맞은’ 거룩한 건물로, ‘품위 있고 아름다워야 하며 천상 현실에 대한 표지와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공동체인 교회는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으로 이해합니다. 성당은 이러한 여정 중에 영적인 음료와 양식을 취하고 하느님안에 머무름을 통해 활기를 회복하는 쉼터인 셈이지요. 그러면서 또한 천상의 예배를 미리 맛보는 찬미의 마당이 기도 합니다.

오늘 성당에 와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 충분히 쉬셨나요? 잠시 가만히 앉아 하느님을 생각해 보세요. 색색의 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처럼 그렇게 하느님께서 함께하실거예요.

유한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학교 홍보국



요즘은 열쇠 없어도 살수 있어요. 눈동자로, 지문으로 열고 닫고 하지만 의미는 변하지 않았답니다.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것. 오직 내게만 주어진 것. 그러니 눈동자도 지문도 결국 열쇠인 것이죠.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마태 16,19)

열쇠

